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정자료



■ 매수 : 3매 ■ 사진 :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press.webhard.co.kr) ID/PW:press1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2133-6205	신문팀장	2133-6207	담당자	2133-6251
이준형		천세은		박원오	

오세훈 시장, 장기화 되는 한파특보에 취약계층 보호 나서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월) 10시 55분,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 센터(중구 봉래동 122-17)'와 동행목욕탕인 '아현스파랜드(서대문구 북아현로4길 9-7)'을 차례로 방문해 한파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점검했다.
- 서울시는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상담반·겨울철 응급잠자리 등을 운영하고 침낭·방한복·핫팩 등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동행목욕탕을 활용하여 쪽방 주민이 추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시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16일(토),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노숙인을 위해 124명의 거리상담반 투입과 함께 긴급 구호 물품 1,100여 개를 지급하고 353명의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 오 시장은 이번 한파는 오래 갈 것 같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공간을 점검하러 왔으며 직접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파특보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현장 방문」 주요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0:55~11:05 (10')	한파특보 발령 노숙인 보호 대책 점검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11:20~11:30 (10')	동행목욕탕 운영 점검	아현스파랜드

※ 관련 부서 :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 조수민 ☎2133-7482

◇ (붙임) 현장사진 2매



사진1)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지난 16일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18일(월)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점검을 위해 서울시 동행목욕탕(아현스파랜드)을 찾아, 목욕탕 종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2)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지난 16일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점검을 위해 동행목욕탕(아현스파랜드)을 찾은 오세훈 시장이 18일(월) 수면실 바닥의 난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